

# 인격함양 수능탈출캠프

## 2004 포천시 사랑의 나눔 캠프 마련



지난 3일 2004 포천시 사랑의 나눔 캠프에 참가한 관내 4개교 고3 94명의 학생들이 산정호수 유스타운 체육관에서 입소식을 가졌다.

포천시는 영북면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고3학생 및 이벤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능탈출 고3을 위한 2004 포천시 사랑의 나눔 캠프'를 지난 3일부터 2일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포천중고 31명, 일동중고 40명, 영북중고 13명, 동남고 11명 등 4개 학교 고3학생 94명이 참가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틀동안 입소식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입소절차를 마치고, 서바이벌게임 및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대화의 시간, 미술공연, 명랑운동회, 도전 OX퀴즈 등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런했다.

이번 캠프를 주관한 박미옥(드림이벤트) 실장은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관내 6개 고등학교가 다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캠프에 참가한 최보람(동남고 3년)학생은 "친구 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참가를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타학교 친구들을 알고 마지막 고3의 추억을 만든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포천시 사회복지과 전영진 계장은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길 바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한 인격수양과 정서 함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프는 포천시가 청소년관심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총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1318 우리를 말한다 3

## “포천여중 야간축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안수현 포천여자중학교 학생회장

“올해 처음으로 축제를 야간에는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야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포천여자중학교 안수현(14.사진) 학생회장이 학생회장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밝힌다.

안수현은 “야간 축제는 인근 지역에 사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과 학교생활은 낮에만 하다가 밤에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즐거움이 대단한 것 같다”며 야간축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학생회 운영은 매일 회의를 통해 각 반에서 원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건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포천여중에 대해 안수현은 “배드민턴으로 유명하고 학교시설이 좋은 것으로도 유명하죠”라고 한다.

또 특별활동시간에는 같은 반 학생들만이 아닌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

포천여중 학생회의 전통은 방송반 출신들이 회장에 당선된다는 점이다. 안수현도 방송반 출신이다.

청소년 문화에 대해 “친구들끼리 모이면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우리의 문화죠”라며 수다의 주제는 학교선생님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포천여중 선생님이 너무 멋있다는 안수현은 장래희망을 ‘선생님’이라고 밝히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만 해야하지 않겠어요”라며 당당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취미로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교과제를 검색을 주로 하고 있다.

안수현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현실에 엄매하지 않고 우리

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학생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안수현은 “학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셨다”며 “고등학교에서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동안 부회장인 윤보라 학생과 선도부장 조나라 학생의 도움을 특히 강조하는 안수현은 “이런 일이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 두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올 겨울방학에는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배우며 중학교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안수현은 “이후 학생회장에게 ‘처음에는 힘들고 부담스럽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학생회장은 중학교 시절을 더욱 값지게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안수현의 얼굴에서 미래의 훌륭한 선생님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아빠 어렸을 적에(13)

## 안뒤아 아저씨

월남전에 갔다 돌아온 김 상사 철이 아버지가 매우 신기한 전자 제품을 사 가지고 오셨습다.

네모 번듯한 기계인데 이름이 녹음기랍니다. 우리들은 서너 명씩, 대여섯 명씩 때를 지어 철이 아빠가 군부대에서 퇴근할 때만을 기다려 철이네 방에 들어가 녹음기 구경을 하였습다.

“아,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그것 참 신기하기도 하지...”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희안한 일입니다. 이 조그만 기계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

마이크라는 문퐁퐁 문퐁퐁에 대고 ‘아, 아.’ 하면 그대로 크게 울려 나옵니다.

우리들이 노래로 녹음을 하면 신기하게도 우리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저장되었다가 나옵니다. 정말 신기한 물건도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깔깔거리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무엇이든 녹음을 하였다가 되돌려 들면 그대로 나옵니다. 너무도 신기하였지만 우리 농사꾼의 지식들이 넘볼 대상은 아니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달라고 조르지 않고 그냥 라디오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의 인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충청도 서산에서 한 아저씨가 이사를 와서 제봉이네 집에 세들어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22인치 큰 흑백텔레비전을 한 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최초의 텔레비전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 활동하는 것이 다 보이다니...

아저씨는 처음에는 5원의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로 방으로 들여보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였습다.

김일, 천규덕, 여검부, 장영철이 나오는 레슬링이 나올 때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현금을 내고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장욱제, 태현실이 나오는 ‘여로’를 좋아하십니다.

농촌이라 콩이나 팥은 공에 있어도 돈 5원이 주머니에 있는 날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텔레비전을 사다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구경꾼이 많아져서 입장료를 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저녁마다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수지맞는 장사인이 됩니다.

아이들은 고철을 팔거나 계란을 가져와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옛이나 막대사탕, 눈꽃사탕을 사먹는 대신 문화생활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5원으로 보면 안돼요?”

우리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고, 돈이 모자라 들어갈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안뒤아!”

아저씨의 대답은 한 마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텔레비전 보는 그 집을 ‘안뒤아네’라 불렀습니다.

안뒤아 아저씨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약날해 갑니다.

그는 밭을 일 년에 쌀 두 말 주는 조건으로 도지로 얻어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멘트를 사다 마을 회관 건너편 모래사장에서 직접 블록 벽돌을 찍었지요.

마을 회관 건너편 모래사장은 개울가로 흥수가 있던 곳이라서 입자가 고운 모래가 많았습니다.

안뒤아!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TV를 보여 주는 조건으로 갖은 일을 시켰습다.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모래를 다섯 리어카 파오면 TV를 하루저녁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갈 다섯 리어카 주워 오면 TV시청 하루 저녁, 짝어 놓은 블록 벽돌에 물 조리로 한나절 물을 주면 이를 저녁, 하물며 자기의 아들이랑 한나절 놀아주면 하루 저녁, 밤 한 뒷바 가져오면 하루 저녁, 아들에게 줄 별 따지 오백 장 가져오면 하루 저녁, 유리구슬 백 개 가져오면 하루 저녁, 벽돌 다섯 리어카 나르면 하루 저녁을 TV를 보는 자격을 주며 우리들의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장난감까지 착취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날마다 집 짓는 현장에서 머슴처럼 지내며 TV를 볼 수 있는 날 짜를 쌓아놓고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새창으로 양꼬뽕도 얻어먹고, TV도 보는 ‘깡 먹고 알 먹고’ 인줄로 알고 힘든 노동에도 으스스했지만 사실은 안뒤아 아저씨는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한 셈이지요, 우리들은 안뒤아 아저씨의 노리갯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안뒤아 아저씨는 흑백텔레비전 한대로 집을 짓고 돈을 벌며 몇 년 뒤 그의 고향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안뒤아 아저씨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른들의 상술이 아이들을 울립니다. <계속>

### 도,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엑스포’ 개최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진단체 보는 청소년 진로 직업탐색 엑스포를 24일부터 다음달18일까지 오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등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흥미·성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탐색관·대학교·학과·전문직취업학원·지역업체·청소년단체 등의 부스를 직접방문해 설명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종합정보관, 자격증관련

정보나 직업체험단을 통해 자격증·취업·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업체험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메이크업 아티스트·패션 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설명 및 시연회, 사물놀이 공연, 청소년우수 동아리 및 예술제 입상자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이루어 진다.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지혜배기자 94spice@hanmail.net

### 제2회 포천 청소년 연극제

오는 21일 대진대 예술관 공연장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는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대진대 예술관 공연장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표현의 미를 무대 위에 표현하는 연극축제로 제2회 포천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한다.

이번 연극제는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종합예술인 연극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표현능력을 배양하고 희곡 문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협동심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연극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희용 지부장은 “급변하는 세상에 두 번째로 개최되어 발전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앞으로 포천청소년연극제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최고의 청소년연극제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뜻 깊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점

# 모발의 혁신 퍼슨 코리아(주)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PERSON KOREA

취침, 운동, 사우나 OK!!

## 퍼슨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신제품
- 오랜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